

한·아세안 문화장관, 광주 모인다

내일부터 이틀간 장관회의...내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사전행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세안 문화협력 핵심기관' 위상 강화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한국의 신남방정책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의 미래공동체 실현'을 위한 '2019 한·아세안 특

별문화장관회의'를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다. 각국 문화장관들은 이번 회의에

서 △상호문화이해 △공동창작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강화 △문화산업 교류 △문화유산 보존·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아세안



절어진 가을, 장성 황룡강을 건다

깊어가는 장성의 가을, 황룡강의 더욱 절어진 가을꽃들이 아름다운 강변경경을 완성했다. 주말인 19일 황미리랜드에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황룡강의 가을꽃들은 10월 말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간 폭넓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결과는 오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신남방 정책과제 중 하나인 한·아세안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문화 분야 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세안 문화협력을 위한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세안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로 △한·아세안 문화관광포럼과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전통악기로 구성된 아시아전통 오케스트라 공연도 이어진다.

한편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앞서 문화예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대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아세안은 인구 6억 5000만 명에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인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이자 한국의 제2대 교역 대상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이번 정부에서 최대 규모로 열리는 국제회의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문화협력 동반자로 발전하는 의견을 교환하고 유소년·청년 등 새로운 세대를 위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금지, 3·4호기 폐쇄하라”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지난 19일 한빛원전 앞에서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단체는 이날 “핵발전소에서 결코 일어나서 안 되는 원자로 출력 급상승 사고가 한빛 1호기에서 일어났다”며 “격납건물에 선 국내에서 가장 많은 빈틈(공극)과 부식상태의 절관이 발견되면서 한빛 원전은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한빛 원전의 사고와 부실함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처가 미흡함을 비판하면서 핵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참가자들은 한빛 원전을 상여에 실어 보내는 퍼포먼스로 한빛 원전 재가동 반대와 폐쇄의 의지를 표현했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희망하는 뜻으로 강강술래를 함께했다.

공동행동은 “앞으로도 한빛 핵발전소 1·3·4호기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위험천만한 상태인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되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친환경·건강식품’ 전남 해조류 우수성 르몽드지 보도 눈길

김·다시마 양식·생산과정 취재...“유럽시장에 적극 홍보”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lemonde)가 해남, 완도, 신안 등 전남 청정바다의 해조류의 우수성을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르몽드에서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요리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해조류에 관한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7월 프랑스 르몽드의 레미바루와 줄리앙 고풀슈타인 기사는 해남, 완도, 신안 등을 찾아 생생한 해조류 양식 현장을 둘러보고 완도 해역을 돌며 김과 다시마 양식 및 양식 생산 과정을 사진에 담았다.

이어 전남지역 김 가공공장과 해남 소재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를 방문해 해조류 품종 연구

개발 과정과 성과를 취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르몽드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어릴 적 김을 직접 수확하고 김부각을 만들어 먹었던 경험을 소개하며 전국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전남산 김 성분의 우수성과 위상을 설명했다.

당시 레미바루와 줄리앙 고풀슈타인 기사는 프랑스가 자국에서 생산한 해조류의 대부분이 가공사료와 공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식용 해조류를 생산하고

있어 해조류의 활용 방안과 가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르몽드의 이번 보도는 한국의 친환경 해조류 양식 과정과 함께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해조류의 우수성, 첨단화된 김 가공기술 등을 유럽시장이 주목했다는 데 의미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양근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르몽드지 김 보도와 발맞춰 전남의 청정바다에서 연간 200만톤 이상이 생산되는 해조류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영암군, 임대농기계 사용으로 농업경영비 절감

영암군은 농업경영비 절감과 밭작물 농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의 3분기 임대실적을 분석한 결과 39분기 임대실적을 분석한 결과 39

농기계임대사업의 3분기 누적실적은 5,183대(전년 4,936대)로 4,377명의 농업인이 7,186일을 사용하여 농업경영비 약39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운영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요 임대기종인 승용예초기의 이용회수가 전년과 비슷하였고, 벼 중간물떼기 시기에 사용되는 배토기를 추가 확보하여 대폭 실적이 향상되었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9월의 임대실적이 주춤한 경향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임대실적을 보면 여름철 농업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임대 기종으로는 승용예초기, 관리기, 배토기, 파종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조대호 기자

김삿갓도 반한 국화동산에서

2019 화순 국화향연

2019.10.25.(금) - 11.10.(일)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 17일간